

전기차/배터리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중국 견제 효과로 K 배터리 성장 전환

“트럼프정부, 중국산 전력 시스템 수입 차단하는 행정명령

행정명령 14420은 대형 변전소 변압기, 계통 연계형 인버터, BESS, 고전압 차단기, 제어시스템 등의 수입을 안보 이슈로 제한하는 명령. 국가 언급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올 12월 24일까지 규칙을 확정하고 특정장비 또는 공급업체를 지정.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안보 이슈와 결합되면서 발표된 정책으로 의회에서 공화, 민주 모두 동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K배터리가 미국 BESS의 공급을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국면

2025년 기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전력 시스템의 수입 의존도는 BESS가 5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인버터, 변압기, 스위치기어 등은 2~8%에 불과. 미국 내 상위 BESS 사업자들이 CATL 등 중국의 배터리를 수입해서 설치했기 때문. 올 해까지는 관련 재고를 소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설치량 기준으로 K배터리의 비중이 급상승할 것. 중국의 CNESA(Zhongguancun Energy Storage Industry Technology Alliance)의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BESS 해외 계약 규모는 298GWh로 전년비 83% 증가했는데, 이중 북미는 5GWh에 불과. 보 조금 수렴 기준으로 비중국 비중 비율 도입의 효과가 시작된 것. K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BESS로 전환한 전략이 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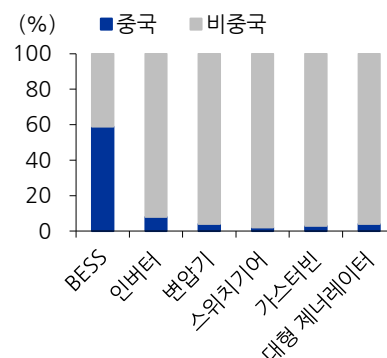
“유럽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 확대도 시간 문제, K배터리에 긍정적

EU는 중국산 순수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만 하고 있으나, 연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세도 도입도 확정할 예정. 산업 가속화법은 EU내의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소재와 부품을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 중장기적으로는 BESS 제조에 대한 탄소배출 검증을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 K배터리는 단기적으로 미국 BESS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에 수혜를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도 점유율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 특히 미국 BESS 시장 확대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부터는 그 강도가 확연하게 높아질 것. 당사가 분석하는 소재/부품업체들 중 미국 BESS 확대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곳은 LFP BESS 각형 배터리 모듈과 캔을 생산하는 **신흥에스이씨(243840)**, **상아프론테크(089980)**, **상신이디피(091580)**와 LFP 배터리용 알루미늄박을 제조하는 **DI동일(001530)**, 미국 최대 BESS 사업자에게 전지박 공급이 예정된 **솔루스첨단소재(33637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 미국향 LiPF6 공급량을 내년부터 크게 늘리는 **후성(093370)** 등임. 또한 내년부터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향 K배터리 수요도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주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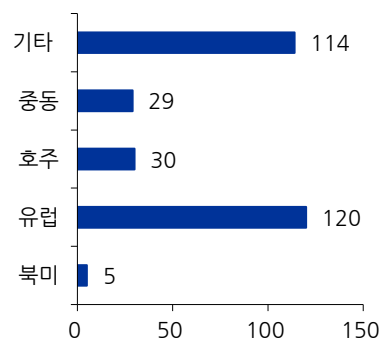
OVERWEIGHT

미국의 중국 전력 시스템 수입 비중(금액 기준)



자료: BNEF, 유진투자증권

올 상반기 중국의 BESS 해외 계약 규모(GWh)



자료: CNESA, 유진투자증권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41	1,651	1,494	1,727	2,055	2,571	3,307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570	1,474	1,297	1,504	1,792	2,248	2,912
YoY(%)	51.2	56.3	9.3	-6.1	-12.0	16.0	19.1	25.4	29.5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7	9.3	9.9	9.0	7.8	8.9	10.4	12.7	16.2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71	177	197	223	263	323	396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71	8,574	11,644	13,529	15,873	18,271	20,726	22,915	24,879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1,156	12,842	14,997	17,187	19,383	21,255	22,816
YoY(%)	83.7	36.6	37.8	15.1	16.8	14.6	12.8	9.7	7.3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6.0	40.2	45.6	50.7	55.6	59.2	61.6
일본 전기차 판매량	96	141	110	115	139	167	201	242	292
YoY(%)	119.5	46.6	-22.2	4.7	20.8	20.4	20.4	20.4	20.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2.1	3.0	2.3	2.3	2.8	3.3	3.9	4.6	5.4
기타 아시아 총합	251	338	379	572	738	917	1,142	1,418	1,771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10	2,945	3,856	4,669	5,790	6,561	7,656	9,071
YoY(%)	15.1	15.6	-2.1	30.9	21.1	24.0	13.3	16.7	18.5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2	22.9	29.0	34.5	41.9	46.6	53.3	61.9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175	485	1,193	1,577	1,971	2,424	2,909	3,433	4,016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7,623	20,612	24,007	28,213	32,251	36,575	41,273
YoY(%)	55.0	35.7	28.7	17.0	16.5	17.5	14.3	13.4	12.8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9.6	22.3	25.2	29.0	32.5	36.2	40.0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